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이후의 주관적 웰빙 국제 비교

한준 (연세대학교)

- 코로나19가 삶의 만족도 세계 평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만족도가 상승한 나라와 하락한 나라의 비율이 같다. 코로나19 기간 중 연도별 변화 역시 일관성이 없다.
- 코로나19는 부정적 정서경험의 세계평균을 다소 높였으며, 부정적 정서경험 평균이 높아진 나라의 비율이 높다. 코로나19 기간 중 연도별 변화는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패턴이 더 우세하다.
- 코로나19의 치명률은 5%를 넘는 나라에서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부정적 정서경험을 높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엄격성과 국민들이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위협감은 주관적 웰빙과 비선형 U-자형의 관계를 보인다.
-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가 큰 반면, 높은 나라들은 변화가 크지 않으며 부정적 변화가 우세하다. 코로나19 전후 1인당 GDP 수준 변화는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 민주주의 수준은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나라의 종교적 성향은 차이를 보인다. 세속적·합리적-생존적인 유교권은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아진 반면, 전통적-생존적인 이슬람은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낮아져서 대비를 보인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20세기 스페인 독감에 비할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 등의 측면에서 엄청난 대감염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페인 독감

이 범유행되었던 1918년부터 2년여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2,500~5,00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년여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1,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의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규모이다. 이처럼 세기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까운 사람의 확진이나 사망으로 사람들은 공포와 슬픔, 불안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방역 차원에서 실시한 격리와 거리두기는 개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제약된 자유로 인해 무력감과 구속감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국제교역의 제한 등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곤궁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개인들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을 넘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은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방향의 예상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들도 존재한다. 우선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한 어려움은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피할 수 있었다. 사



회적 고립과 단절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소통을 통해, 직장이나 학교의 폐쇄는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주관적 웰빙의 하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 즉 인간 고유의 높은 회복능력(resilience)이다. 주관적 웰빙 연구들에 따르면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장애를 경험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주관적 웰빙이 원래에 가깝게 회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면적 가능성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관적 웰빙이 변화했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최근의 「갤럽 월드폴」에서 실시한 주관적 웰빙 측정치를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영향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서 주관적 웰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국제 비교

코로나19로 인한 주관적 웰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과 2021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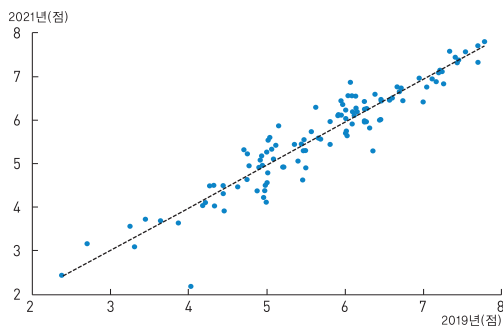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전 세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림 XII-21]은 「갤럽 월드폴」의 2019년과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선은 이들 간의 관계를 요약한 회귀선이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11점 척도(0~10점)에서 5.671점, 2021년의 경우 5.617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2년 동안 0.054점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미소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별 코로나19의 영향 차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삶의 만족도 상승과 하락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분석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 국가는 114개국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7개국, 조금이라도 더 낮아진 국가 역시 절반인 57개국이다. 이처럼 국가별 삶의 만족도 상승과 하락이 각각 절반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무작위적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9년 대비 2021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0.054점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평균의 미세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레바논의 삶의 만족도 하락(4.024점→2.179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 국가들의 일반적 추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국가(회귀선 위쪽)들과 상대적으로 낮아진 국가(회귀선 아래쪽)들의 분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가 전체 추세에 비해 더 높아진 국가는 51개국(44.7%)이고, 더 높아진 국가는 63개국(55.3%)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추세를 기준으로 나누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국가들이 더 많은 것이다.

[그림 XII-21] 세계 국가별 삶의 만족도 변화, 2019, 2021



주: 1) 전 세계 114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한편 국가별로 과거의 삶의 만족도 변화 방향과 정도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예외적 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2010년 이후 삶의 만족도 값의 표준편차를 구한 뒤 그 값보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량이 크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분류하였다. 국가별 변화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국가는 24개국(21.1%), 상승한 국가는 12개국(10.5%)이었으며, 78개 국가(68.4%)는 예외적인 변화가 없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변화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경우가 상승한 경우보다 두 배 많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의 변화의 패턴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변화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의 순(net)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2년간의 지속적인 상승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간의 상승폭이 다른 1년간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삶의 질이 2년 동안 하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따라서 2019~2020년, 2020~2021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방향을 분류하여 지속적 하락과 지속적 상승, 하락 후 상승과 상승 후 하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105개 국가 중 지속적 하락 국가는 22개국(21.0%), 하락 후 상승 국가는 36개국(34.3%), 상승 후 하락 국가는 36개국(34.3%), 지속적 상승 국가는 11개국(10.5%)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교차한 경우가 68.6%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

[그림 XII-22]는 「갤럽 월드폴」의 2019년과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부정적 정서경



험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선은 이들 간의 관계를 요약한 회귀선이다.

분석에 따르면 113개 국가들의 2019년 부정적 정서경험 평균은 0.286점(0~1점 척도), 2021년의 경우 0.291점으로 부정적 정서경험의 평균값이 0.005점 미세하게 높아졌다. 삶의 만족도 평균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웰빙이 낮아졌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국가별 2년 사이의 부정적 정서경험 값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 결과 113개국 중 부정적 정서경험 평균이 2019년 대비 2021년 높아진 국가는 59개국(52.2%), 낮아진 국가는 54개국(47.8%)으로 나타났다. 113개 국가 전체의 부정적 정서경험 평균값이 높아진 만큼, 국가별로도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아진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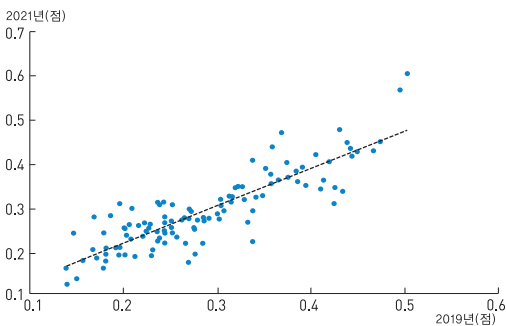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대로 2019년 대비 2021년 부정적 정서경험 평균은 아주 조금(0.005점) 높아졌다.

회귀선을 기준으로 113개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아진 국가(회귀선 위쪽)는 52개국(46.0%)이고, 부정적 정서경험이 낮아진 국가(회귀선 아래쪽)는 61개국(54.0%)이다.

한편 국가별 코로나19 이후의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가 예외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 이후 국가별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의 표준편차를 구한 뒤 그보다 큰 경우를 예외적 변화로, 작은 경우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정서경험이 상승한 국가는 113개국 중 25개국(22.1%), 하락한 국가는 11개국(9.7%)이었으며, 77개국(68.1%)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변화가 있는 경우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아진 경우가 낮아진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다음은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을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의 부정적 정서경험의 순(net)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04개 국가 중 지속적 하락 국가는 14개국(13.5%), 하락 후 상승 국가는 17개국(16.3%), 상승 후 하락 국가는 60개국(57.7%), 지속적 상승 국가는 13개국(12.5%)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교차한 경우가 74.0%로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 정서경험이 상승했다 하락한 회복적(resilient) 패턴이 더 우세하였다.

[그림 XII-22] 세계 국가별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 2019, 2021



주: 1)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함.
2)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코로나19의 피해, 정부대응, 주관적 위험감과 주관적 웰빙의 변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코로나19가 국가들 전반에 걸쳐 주관적 웰빙에 일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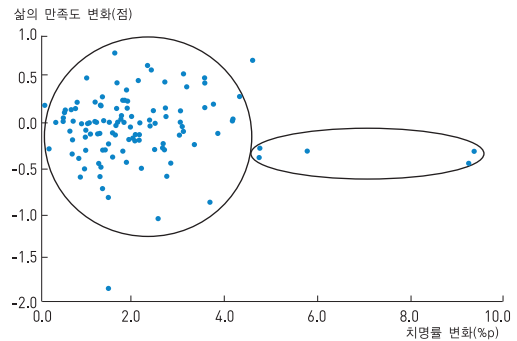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일차적 피해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지표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치명률이 사용된다. 확진자 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치명률은 감염된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는가, 즉 의료체계의 역량에 의존한다. 동시에 치명률은 코로나19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다면 사람들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아지면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가?

[그림 XII-23]은 국가별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주관적 웰빙 변화를 보여주는 산점도이다. 주관적 웰빙 변화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의 변화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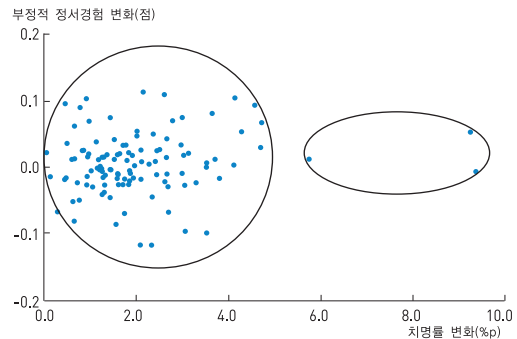
코로나19 치명률과 삶의 만족도 변화의 산점도를 보면 양자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치명률의 수준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4.5% 이하인 경우에는 치명률 수준과 상관

[그림 XII-23] 코로나19 치명률과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1) 삶의 만족도



2) 부정적 정서경험



주: 1)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 치명률=(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코로나19 확진자 수)×100.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아시아지역정보센터, COVID-19 & Data(<https://sites.google.com/view/snuaric>), 원자료.

없이 삶의 만족도 변화가 상승과 하락이 뒤섞여 어떤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렵지만, 치명률이 4.5%를 넘는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코로나19 치명률과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의 산점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정서경험의 변화가 상승과 하락이 뒤섞여 있지만 치명률이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주관적 웰빙 변화 간에는 일종의 문지방(threshold)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결과 매우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주관적 웰빙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과 같은 피해의 정도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의 엄격함 역시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변화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강력한 폐쇄(lockdown)나 이동제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민들은 삶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엄격해지는 만큼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대응이 반드시 삶의 질을 낮추고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정부의 엄격한 대책과 효과적 방역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불안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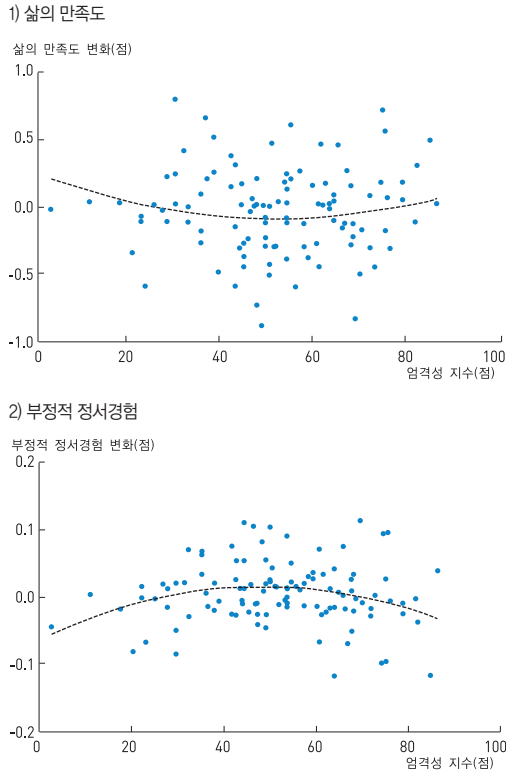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가능성을 결합하면 한편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엄격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삶의 불편을 높여 주관적 웰빙을 낮추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강력한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낮추어 주관적 웰빙

이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은 그 이전 단계들을 취한 다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이 정부의 엄격한 방역에 점점 익숙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경험적 자료가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의 엄격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의 엄격성과 주관적 웰빙 변화를 교차시켜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엄격성 지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의 연구진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수치화하여 발표한 보고서이다. 토마스 헤일(Thomas Hale) 등 연구진은 9개 항목으로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을 평가했다. 그 항목들은 휴교, 직장 폐쇄, 행사 취소, 모임 제한, 대중교통 중단, 외출 금지, 지역 내 이동제한, 해외여행 제한, 방역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XII-24]의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과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엄격성 지수 40점까지의 구간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삶의 만족도가 개선된 반면 엄격성 지수 40~60점 구간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가 더 많다. 한편 60점을 넘어서면 삶의 만족도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조치와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의 경우에도 엄격성 지수 40~60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적 정서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XII-24]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과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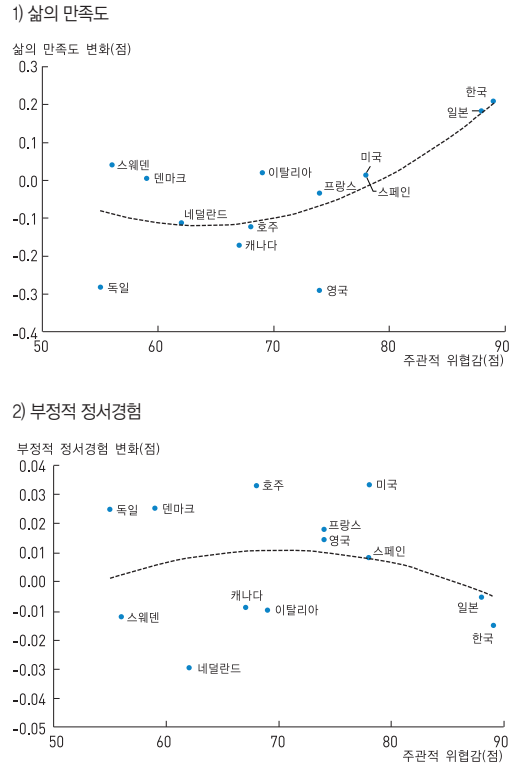
- 주: 1) 전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엄격성 지수는 휴교, 직장 폐쇄, 행사 취소, 모임 제한, 대중교통 중단, 외출 금지, 지역 내 이동제한, 해외여행 제한, 방역 홍보 9개 항목들의 점수를 통해 산출됨(0~100점).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Thomas Hale, Noam Angrist, Rafael Goldszmidt, Beatriz Kira, Anna Petherick, Toby Phillips, Samuel Webster, Emily Cameron-Blake, Laura Hallas, Saptarshi Majumdar, and Helen Tatlow. (2021). "A global panel database of pandemic policies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Nature Human Behaviour*.

삶의 만족도 변화 및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 모두 회귀선이 요약해 보여주는 것처럼 엄격성 지수와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I-25]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위험감과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 주: 1) 전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위험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 국가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Survey", 2020.

코로나19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주관적 위험감이다. 주관적 웰빙이 객관적 상태가 아닌 주관적 반응이



라는 점에서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요인들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심각한 위기와 재난으로 여기고 걱정이 깊어지면 주관적 웰빙 또한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위협감이 높아지면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고 스스로 방역에 힘쓰게 되어 삶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주관적 위협감 역시 객관적인 정부 대응의 엄격성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웰빙에 대해 비선형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감을 국가별로 측정한 자료는 많지 않다. 2020년 미국 Pew Research Center는 「글로벌태도조사(Global Attitude Survey)」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위협 요인들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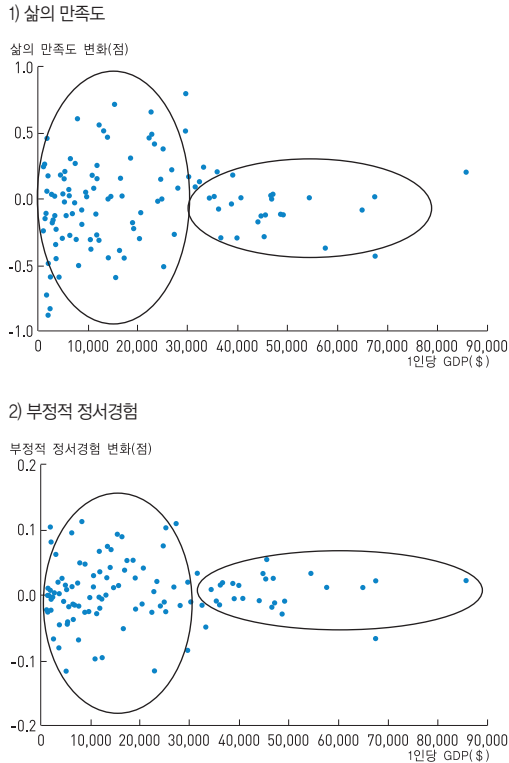
[그림 XII-25]는 이 조사에서 국가적 위협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꼽은 응답 비율과 주관적 웰빙 변화를 산점도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를 국가적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70% 정도일 때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이후에는 위협으로 느끼는 비율이 늘어도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협감과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위협으로 코로나19를 느끼는 비율이 70%인 지점을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경험이 증가로부터 감소로 바뀐다.

국가 GDP 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대감염은 사회적 활동의 제약은 물론, 봉쇄로 무역이 어려워지고 경제 활동도 제약을 받아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다. 물론 정부가 최선을 다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봉쇄가 길어지면 정부의 대응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국가의 경제적 여력은 코로나19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추론이 맞다면 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주관적 웰빙의 하락이 적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 발전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의 영향이 곧바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

경험적 자료는 위의 추론 중에서 두 번째를 지지한다. [그림 XII-26]은 국가별 1인당 GDP와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및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의 산점도를 보여준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하인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가 상승과 하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변화 정도가 큰 반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크지 않고 또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 정서경험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인다. 1인당

[그림 XII-26] 1인당 GDP 수준과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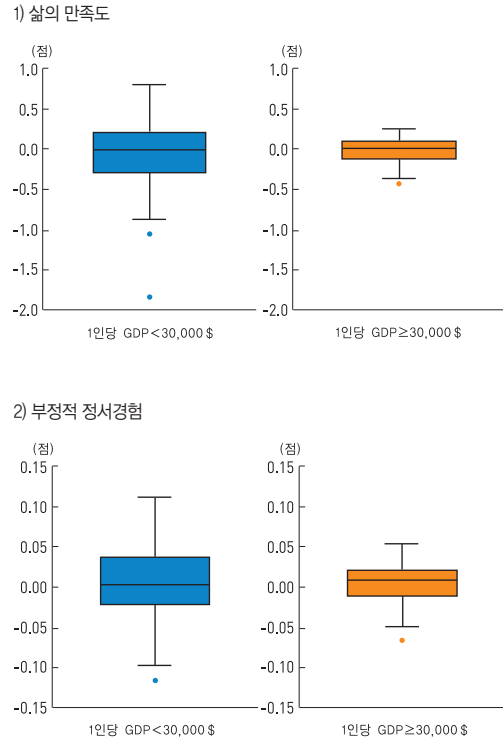
- 주: 1)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함.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GDP가 3만 달러 수준에 못미치는 나라들에서는 부정적 정서경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에 고르게 나타나고 변화의 폭도 큰 반면,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가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변화의 폭은 작다.

[그림 XII-27]은 이러한 비교를 명시적으로 보

[그림 XII-27] 빈부 국가별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 2019-2021



- 주: 1)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GDP 3만 달러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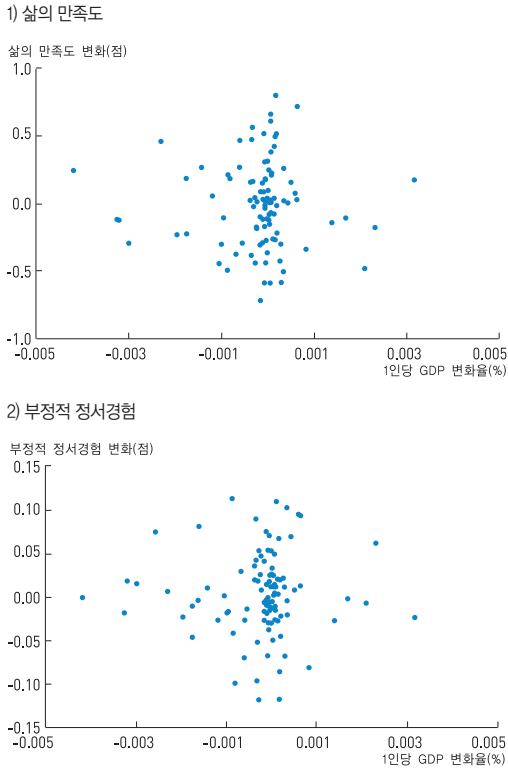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여주기 위해 1인당 GDP 3만 달러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나눈 후, 상자도표로 그 변화의 폭과 방향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1인당 GDP 3만 달러 전후의 변화의 방향과 정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



[그림 XII-28] 코로나19 이후 1인당 GDP 변화율과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 주: 1) 전 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함.
 2) 1인당 GDP 변화율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1인당 GDP 변화량의 백분율 값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장의 차이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정체 혹은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은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더 낮아졌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것이다.

[그림 XII-28]은 1인당 GDP 변화율과 주관적

웰빙 변화를 산점도로 표시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인당 GDP를 낮추어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원편 하단에서 오른편 상단으로 선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인당 GDP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를 교차시킨 그림이나,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와 교차시킨 그림 모두 이러한 선형적 관계 혹은 어떤 체계적 관계도 보이지 않고, 1인당 GDP 변화에 상관없이 상승과 하락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민주주의, 정부 신뢰와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민주주의의 퇴조와 권위주의의 부상 혹은 재부상을 우려하였다. 급속하고 위협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 엄격할수록 국민의 자유는 제약당하고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보다 강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유의 제약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대외적 교류를 봉쇄해버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인적, 경제적 봉쇄가 새로운 민족주의와 경제 블록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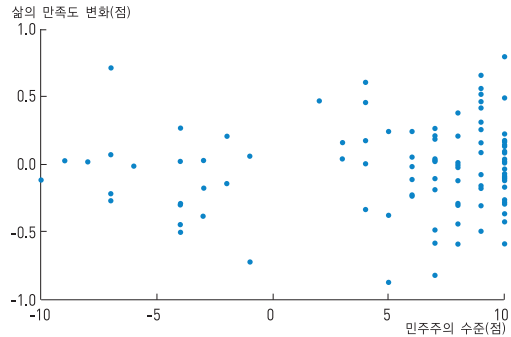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일부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제한과 자유의 제약은 주관적 웰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에서도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 국민의 협조를 얻으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인 국가들은 국민들의 생각이나 협조와는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방역대책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체5(polity5)」 프로젝트 지수를 이용하여 국가별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체5」 프로젝트는 1800년부터 최근까지 모든 국가를 리더의 충원, 리더의 권위에 대한 제약, 정치적 경쟁 등 정치체제 작동의 핵심적 특징에 따라 부호화를 하고 21점 척도(-10~10점)로 값을 매긴다. 최종적인 지수값을 기준으로 독재(autocracy)는 -10점에서 -6점까지, 중간형(anocracy)은 -5점에서 5점까지, 민주주의(democracy)는 6점부터 10점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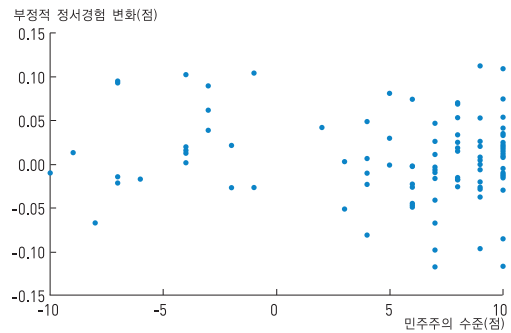
[그림 XII-29]는 민주주의 수준과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를 삶의 만족도 변화와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로 나누어 교차시킨 산점도이다. 소수 독재 국가들(-6점 이하)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이 모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중간 국가들(-5~5점)에서는 민주주의에 가까워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반면 부정적 정

[그림 XII-29] 민주주의 수준과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 관계, 2019-2021

1) 삶의 만족도



2) 부정적 정서경험



- 주: 1) 전 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함.
2)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은 -10점(독재 국가)에서 10점(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분포하는 값이며, 조사 시점은 2018년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Center for Systemic Peace, *Polity5*, 2018.

서경험 변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포함된 민주주의 국가들(6점 이상)에서는 삶의 만족도나 부정적 정서경험 모두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상승 혹은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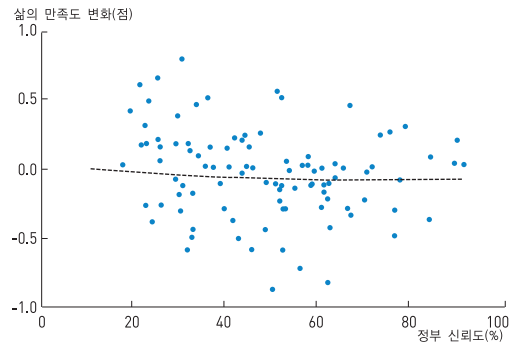
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에 대한 추론은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다 주관적 차원을 강조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정부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함께 정부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공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모두 포괄한다. 민주주의가 정부 구성과 운영의 객관적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 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의 작동에 대해 갖는 주관적 평가의 측면이 더 강하다. 객관적인 민주주의 여부가 코로나19 이후의 주관적 웰빙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주관적인 정부 신뢰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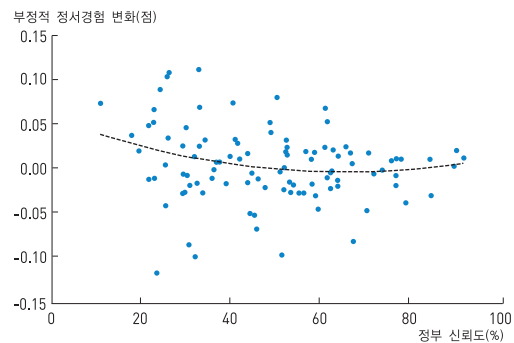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별로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과 삶의 만족도 및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를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XII-30]에 따르면, 정부 신뢰와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는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 신뢰가 60%에 이르기까지는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데 반해 정부 신뢰가 60%를 넘는 국가들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정부 신뢰와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를 교차시킨 그림에서도 비선형적 관계가 보인다. 분석 결과, 정부 신뢰가 낮은 경우 부정적 정서경험이 증가하고, 정부 신뢰가 50%를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적 정서경험 감

[그림 XII-30] 정부 신뢰와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관계, 2019-2021

1) 삶의 만족도



2) 부정적 정서경험



- 주: 1) 전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함.
2) 국가별 정부 신뢰도는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4)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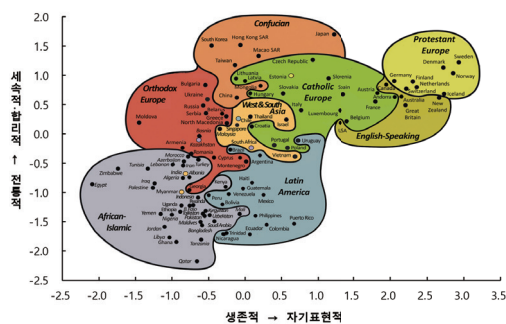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소가 우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 신뢰가 70%를 넘으면서 다시 미세한 정도의 부정적 정서경험 증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부 신뢰와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권 및 종교와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주관적 웰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객관적 정치, 경제적 조건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주관적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주관적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서 국가의 문화권 및 종교는 주관적 웰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를 어떻게 특징짓고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치학자 Inglehart와 Welzel이 함께 작성한 2차원 도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의 문화권을 특징짓고자 하였다. 이

[그림 XII-31] Inglehart와 Welzel의 문화권 구분, 2022



주: 1) 지도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합리적 가치로의 문화적 변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생존적 가치에서 자기표현적 가치로의 문화적 변화를 의미함.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를 거쳐 탈산업화 지식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국가들은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출처: World Values Survey 7, 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http://www.worldvaluessurvey.org>), 2022.

들은 [그림 XII-31]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의 문화를 생존적이나 자기표현적이나—이것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구분과 유사하다—라는 축과 전통적 가치나 세속적·합리적 가치나라는 축을 교차시켜 구분하였다. 자기표현적이고 세속적·합리적 문화의 대표로 유럽의 개신교 문화가 있고, 전통적이면서 생존을 강조하는 문화로서 아프리카와 이슬람 문화가 있다. 한편 생존적이면서 세속적·합리적인 문화로 동아시아의 유교 및 동유럽의 동방 정교회 문화가 있다.

[그림 XII-32]는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변화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상자도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를 보면 삶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아진 지역은 문화권 구분에서 세속적·합리적이면서 생존적인 동유럽과 유교권 동북아 국가들이다. 한편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은 삶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하락하였다. 세속적·합리적이면서 자기표현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미, 북유럽 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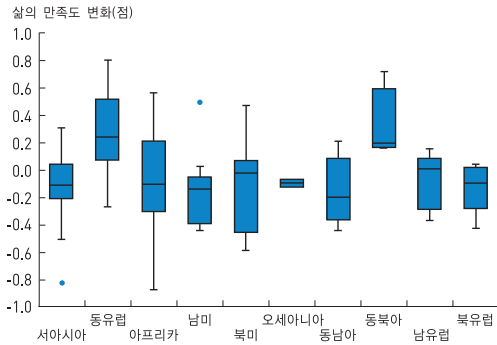
지역별로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를 비교하면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에서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의 폭을 비교하면 북미, 오세아니아,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변화 폭이 적다. 반면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변화 폭은 크게 나타난다.

[그림 XII-33]은 종교별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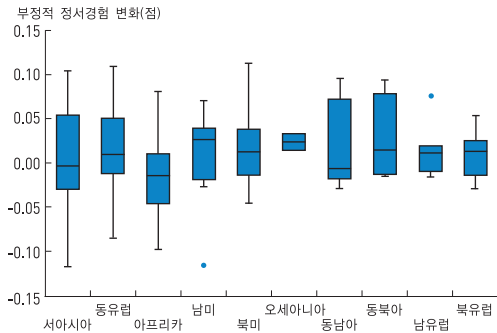


[그림 XII-32] 지역별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분포, 2019-2021

1) 삶의 만족도



2) 부정적 정서경험



주: 1)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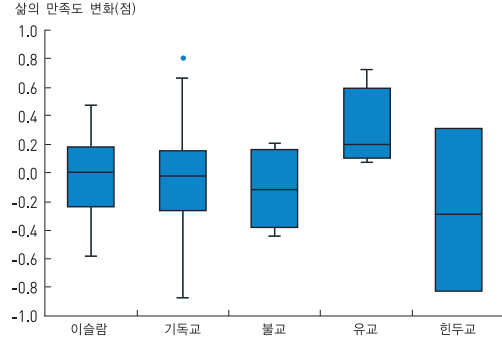
3)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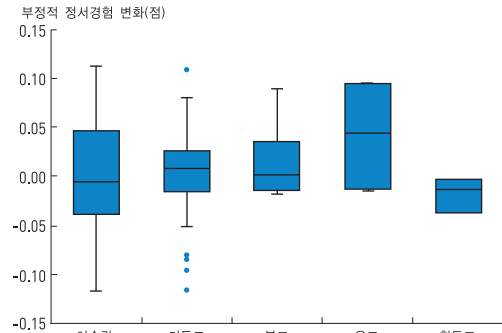
웰빙 변화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세속적·합리적이면서 생존적인 유교권은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생존적인 이슬람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그림 XII-33] 종교별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의 분포, 2019-2021

1) 삶의 만족도



2) 부정적 정서경험



주: 1) 전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부정적 정서경험은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정서경험이 모두 낮아져서 대비를 보인다. 가장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는 기독교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 변화 모두 상승과 하락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한 방향을 보이지 않는다.



맺음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21세기 들어 가장 큰 재난이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는 일관된 방향을 찾기 어려우며, 긍정과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다. 변화의 패턴으로는 일관된 개선 혹은 악화보다는 악화 이후 개선되는 회복형 패턴이 우세했다.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매개를 거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코로나19의 피해 규모로서 치명률과 대응역량으로서 1인당 GDP는 일종의 문지방 효과를 보인다. 치명률이 높지 않거나 1인당 GDP가 낮을 때에는 별다른 변화의 패턴이 보

이지 않지만, 치명률이 높거나 1인당 GDP가 높은 경우 일관되게 그리고 근소하게 주관적 웰빙을 낮춘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의 엄격함, 코로나19를 국가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변화에 비선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논리가 섞여 복잡한 방식으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조건이나 상태의 변화 못지않게 사람들의 주관적 성향과 태도가 주관적 웰빙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를 국가적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 그리고 가치가 세속적·합리적인가 전통적인가, 아니면 생존적인가 자기표현적인가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주관적 웰빙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세속적·합리적인 동시에 생존적인 문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